

'탄소 소재부품 4.0' 대선 공약화 추진

전북도, "연구개발특구 R&D·새만금 실증단지 연계 맞춤형 스마트 생산 메카 되겠다"

전북도가 '탄소 소재부품 4.0' 프로젝트의 대선 공약화를 추진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연구개발특구의 R&D 기능과 새만금의 실증단지 기능을 연계해 자동차, 비행기, 헬스케어 탄소 소재부품을 활용한 맞춤형 스마트 생산의 메카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탄소 소재부품 4.0'은 인터스트리 4.0에서 착안한 용어로 자동차, 부품 소재 등의 기존 제조업과 탄소산업과의 융합화, 고부가가치화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보자는 전북도의 의지를 담아 표현한 것이다.

전북도가 '탄소 소재부품 4.0' 프로젝트를 2020 전북발전 구상 과제로 발굴하게 된 것은 국가적 필요성과 전북도의 정책여건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존 주력 제조업의 부가가치 창출력 부족과 수출 경쟁력 하락으로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제조업의 첨단화 및 고부가 산업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종합대책과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소재 분야 경쟁력 갖춘 국가가 제조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므로 소재 산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 및 진흥계획에 대한 12대 신산업 육성계획도 밝힌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12대 신산업 중 하나로 첨단 신소재 산업(탄소섬유)이 포함돼 있으며, 전기, 자동차, 항공, 드론, 바이오 헬스 등도 '탄소 부품소재 4.0' 프로젝트에 포함돼 있어 향후 미래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분야로



전라북도·도의회·도공무원노조, 노사상생 협력
 '사랑 더하기·희망 나누기' 9일 전북도와 도의회·전북공무원노조 등은 전주시 교동 낙수정마을을 방문해 저소득 세대에 쓸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총 5000장(300만원 상당)의 사랑의 연탄을 배발했다.

주목 받고 있다. 이런 국가적 필요성에 맞춰 전북도는 자동차, 기계부품, 복합섬유소재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전북 연구개발특구가 조성됨에 따라 관련 R&D 기관 및 기업 집적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5월 탄소산업육성법 제정, 올해부터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해상 풍력, 항공차 산업 등 탄소복합재 수요산업이 집적화돼 있어 탄소섬유와 연계한 전후방산업 클러스터화가 가능하다.

아울러, 자동차, 항공드론의 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실증단지를 인근 새만금의 넓은 토지에 용이하게 조성할 수 있다. 이렇듯 '탄소 부품소재 4.0' 프로젝트는 그동안 전북이 잘하고 있고, 차별화된 발전역량을 갖춘 분야를 성장 동력화 한다는 점에서 지역발전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전북도는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신산업을 육성하고 전북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사업발굴을 위해 전북연구원, 탄소융합기술원, 자동차융합기술

원 등 출연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2020 전북발전 구상'을 위한 4개의 과제를 발굴했다. 4개 과제는 탄소산업진흥원 설립과 자동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미래형 개인용 항공기(PAV) 시범도시 조성, ICT 융합 헬스케어 산업비즈니스 벨트 조성 등이다. 유희숙 경제산업국장은 "탄소 부품소재 4.0 프로젝트를 이번 19대 대선 공약에 우선적으로 반영해 명실공히 전북이 4차 산업혁명의 신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도, 스쿨팜 지원사업 40개 학교 추진

전북도는 도시농업 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스쿨팜 지원사업을 40개 학교에서 추진한다. 스쿨팜이란 학교 내 미니텃밭 및 텃밭상자를 조성하고 선생님의 지도하에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수확해 시식하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올해 사업 신청결과 58개 학교가 접

수하는 등 큰 인기몰이 중인 스쿨팜 지원 사업을 지난해 36개 학교에서 4개 학교를 추가로 선정했다. 스쿨팜 지원사업은 자라나는 후세대에 우리 먹거리의 소중함과 농업,농촌의 가치를 인식시켜 도시와 농촌 간의 공감대를 형성, 지속가능한 소통의 장으로 도농 상생을 이끌어내는 사업이다. /인재용 기자

도,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사업 '우수'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

전북도는 9일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사업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표창은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2016년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사업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수상하는 것으로, 전북도는 올해로 3년 연속 수상하게 됐다.

그동안 전북도는 출산과 육아,가사로 인해 장기간 노동시장에 이탈되어 숙련도가 낮아진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해 6개 시지역에 일반형

새일센터와 완주에 농어촌형 새일센터를 설치,운영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다. 이번 평가는 사업수행역량, 상담서비스, 직업훈련 및 인턴운영 취업성과, 사후관리, 고객만족도 등 6개 분야에 걸쳐 서면평가, 대면평가, 만족도 평가를 실시했으며, 특히 전북새일센터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6개 영역에서 'ALL A등급'을 받아 전국 최고점을 받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도 경력단절여성 상용일자리를 6,300명 연계 목표로 일자리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도, 저소득계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추진

전북도는 저소득계층의 노후주택을 고쳐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복권기금 등 총 60억원을 투입해 '저소득계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저소득계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전북도가 지난 2006년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민생안정시책사업으로서 지난해까지 총 614억원

을 투입해 총 1만9,000호의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을 완료했다. 전북도는 앞으로 2020년까지 매년 1,500호씩 총 2만4,776호의 노후주택 개보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등의 노후 불량주택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하고 지붕, 창호, 화장실 등 보수비용으로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해 추락명절 이전까지 보수

2023 세계잼버리 대한민국유치위 TF 구성

올해 8월 개최지 확정 때까지 전반적 정책·유치 전략 수립·전략적 홍보 진행

2023년 제25회 세계잼버리를 대한민국 새만금에 유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가 됐다. 세계잼버리 대한민국유치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공식 출범하는 발대식을 갖고, 세계잼버리 유치위원장인 이주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송하진 지사,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 김중규 부안군수, 전북도의회,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전국 스카우트연맹 관계자 등 2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잼버리 유치를

위한 염원의 뜻을 모으고 개최를 향한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발대식에서는 전북도 도립국악원의 대북공연을 시작으로 '2023 세계잼버리' 유치위원회 발대선언, 위촉장 수여, 인사말씀,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한국스카우트연맹 강태선 부총재는 유치활동 티셔츠 1,000벌을 증정했으며, NH농협은행, 전주의 동진홀딩스 등에서 "세계잼버리 유치를 위해 아낌없는 후원을 하겠다"는 뜻을 전해 참석자들의 환영을 받았다.

유치위원회는 8월 세계잼버리 개최지가 확정될 때까지 전반적인 정책 수립과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국내,외 및 소속기관에서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활동을 전략적으로 홍보하게 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격려사에서 "오늘 출범하는 유치위원회가 '세계잼버리' 유치 성공의 밑거름"이라며 "2023 세계잼버리를 반드시 유치해 대한민국

의 위상을 높이고, 전북의 이름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행사를 주최한 한국스카우트 연맹 함중환 총재는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정부,지자체,기업 및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남은 6개월간 본격적인 세계잼버리 유치 홍보활동이 전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현재 여성가족부와 외교부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고, 유치위원회까지 구성돼 유치활동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 만큼 관련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표심잡기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세계잼버리는 4년마다 개최되는 전 세계적인 스카우트의 야영대회로 2023년 제25회 세계잼버리에는 전 세계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8월 아제르바이잔 제41차 세계스카우트총회에서 163개 회원국의 투표로 개최지가 결정된다. /인재용 기자

도, 식중독 대응 협업체계 구축·강화

전북도는 9일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식중독 종합대응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박철용 복지여성보건국장 주재로 23여개의 관련기관, 단체 등에서 참석해 2016년 식중독 발생현황을 분석하고 각 기관별로 2017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전북도가 이날 발표한 식중독 예방 추진계획에 따르면 도와 보건환경연구원, 시군, 교육청 간에 비상연락체계를 상시 유지해 신속한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식중독 신속보고 능력 향상을 위한 사전 모의 훈련, 대형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확대 운영 등 식중독 상시 예방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집단급식소 및 취약시설인 청소년 수련시설, 횡집 등에 대해서는 시설별, 계절별, 원인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제공을 위한 음식문화개선 사업 및 일반 음식점에 대한 위생등급제 시행, 식중독 예방 사전 컨설팅 사업 확대 등 다양한 식중독 예방 활동을 확대하고 대국민 홍보와 병행한 식중독 예방관리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인재용 기자

정읍시 공고 제2017-94호

정읍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 지정계획(변경)(안) 열람공고

정읍시 고시 제2013-87(2013.11.29)호로 지정된 정읍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지정계획(변경)(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명 칭 : 정읍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 지정계획(변경)(안)
 - 위 치 : 정읍시 소성면 신천리 23번지 일원
 - 면 적 : 232,000㎡
 - 사업시행자 : 정읍시
2. 주민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2017년 01월 24일 ~ 2017년 02월 13일
 - 공람장소 : 정읍시청 첨단과학산업과, 소성면사무소
 - 내 용 : 배수시설 추가 변경
3. 기타사항
 - 이해관계인의 개별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의견 제출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첨단과학산업과(☎ 063-539-5672), 소성면사무소(☎ 063-539-72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 19. 정 읍 시 장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

진안군건설협회 일동